

순천 한정식 우수성 전국에 알렸다

푸드&아트페스티벌 성료...관람객 36만명
'맛·예술' 접목 호평...원도심 활성화 도움

순천시 대표축제인 2019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이 전국각지에서 36만3,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내렸다. 2019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은 '더맛나는 세상! 순천이 예술이야!'를 주제로 순천대표음식인 한정식에 예술을 접목해 음식과 예술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페스티벌은 푸드로드와 아트로드로 나

뉘 진행됐다. 푸드 로드에는 푸드 테이너 20팀 푸드 포차 16팀, 권역별 특화음식 10팀, 글로벌 푸드존, BBQ존, 추억의 먹거리까지 다양한 음식들로 채워졌다. 아트로드에는 순천 예술가들이 만든 공예품, 아트체험, 정원마켓 등으로 구성됐다. 음식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쓰레기 처리 등도 호평 받았다.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은 2016년 처음 개최돼 2018, 2019년 연속 전남 대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숨은 공로자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주역들은 순천시 관광진흥과 채금목 과장, 손정순 관광마케팅팀장, 정명화 음식관광팀장, 박남순, 주우용, 송준부 주무관이다. 채 과장을 비롯한 이들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을 고려한 음식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축제로 이끌었다. 주역들은 기존축제는 축제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푸드만 있지 아트는 없다'라

는 여론을 인식하고 판매부스 음식의 질을 향상시켰고, 음식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순천 한정식을 널리 알리는 데 공헌했다. 원도심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도심의 시장과 상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축제기간에는 관광객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축제가 끝나면 상인들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축제 때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성동로터리 공시장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큰 호응을 얻었다. 정원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도해 셔틀버스를 운영,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축제장으로 유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상환실에서 새우잡을 청하는 등 열정을 쏟았고, 시민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로 페스티벌의 성



순천시 대표축제인 2019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이 36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성황리 마무리 됐다. /순천시 제공

공을 이끌었다"며 "올해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 푸드&아트페스티벌이 순천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추억의 문방구 제19회 곡성심정축제장에 마련된 6070 거리에서 아버와 함께 추억의 문방구를 찾는 꼬마 손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글로벌 한상 성공 노하우 공유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등 21일 여수서 한상CEO특강

재외동포재단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상(韓商)을 초청해 오는 21일 전남지역 고등학교 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한상CEO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 청춘이야! 세계를 꿈꿔라'라는 주제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알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한상의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는 유럽의

대표 한상인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사진)이 나선다. 같은 날 순천대학교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오피스 서비스 분야를 개척한 SUITE 김은미 대표가 강연한다. 청소년을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AL KAUS 김점배 회장이 여수 충무고등학교를 방문해 한상으로서 세계 진출 경험을 나누고 도전과 개척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한우성 이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이 당당히 세계로 나아가 장차 해상왕장보고를 비롯해 일본 서갑호, 미국 김종립, 러시아 최재형 등과 같은 한상의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광양시,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대상 스포츠 저변 확대·체육시설 투자 등 높은 점수

광양시가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대상은 생활스포츠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화합을 이끌며, 각종 스포츠 대회로 대한민국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광양시는 지난 8월 29일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우수성과 전문성, 현장호응, 홍보역량, 주민여론, 지속성, 평판도 등 정량·정성 평가와 스포츠·전문가 등 종합심사를 거쳐 생활체육의 선진도시로서 시민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양시는 매년 120개의 생활체육대회와 10개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해 약 300억원의 지역 실물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윈드서핑과 아이스하키, 어린이체육 교실 등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식 전천후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은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건강 100세 시대에 생활체육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건립될 성황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중마수영장, 체육공원 등은 16만 시민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생활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양시 이삼식 체육과장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광양시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스포츠 미래를 밝히는 생활체육의 선진도시로서 시민과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생활스포츠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양 책 문화축제 마무리 독서유공자 시상 등 눈길

광양희망도서관이 주최한 2019 광양시 책 문화 축제에 가족 단위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는 광양시 책 문화 축제는 시 승격 30주년과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며 '다시, 책으로'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독서진흥 유공자 시상, 작가 특강, 전시, 책피자 바퀴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와 플리마켓이 펼쳐졌다. 이날 독서유공자 수상자로 김수정 세바록 독서동아리 회장과 마커스 스토어 영여강사 등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평소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등 재능 기부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온 실적을 높이 평가 받아 독서유공자로 선정됐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보성차 농업유산' 활용 토론회

보성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전통차농업'을 농촌을 지켜갈 미래 천년사업으로 육성하고, 세계농업유산 등재 가치를 찾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손잡고 나섰다. 최근 보성군은 북재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인 '보성차 농업유산'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유산 전문가를 초빙해 차 농기를 비롯한 주민 50여명과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농업유산 전문가인 성규관대 정기호 교수, 배재대 최종희 교수, 국립농업과학원 안옥선 연구관, 한국농어촌공사 백승석 차장의 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보성전통차농업의 비전을 공유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농업유산의 동적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농업유산 자문위원인 성규관대 정기호 교수는 "보성차 농업유산의 독특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농업유산을 뛰어 넘어 세계농업유산으로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안옥선 연구관은 "살아있는 유산, 지속가능한 농업유산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보성군은 최근 '보성차 농업유산'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보성군 제공

클릭! 고향 소식



순천 마을정원사 31명 배출

순천시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육성을 위한 마을정원사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정원사 31명을 배출하며 저전동에서 진행될 '정원을 품은 마을 조성'에 앞서 주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을정원을 운영할 전문성 있는 정원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보성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 개최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보성군보건소 중회의실에서 보건소장 및 센터장,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3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는 올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방향 모색과 효과적인 정신질환관리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곡성 10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곡성군은 최근 10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삼전강가차마을 중앙광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곡성경찰서, 곡성119 안전센터, 한국석유공사,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들은 직접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고, 산불 안전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을 홍보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